

WOOSONG NETWORK

*WOOSONG COLLEGE JOURNAL
2018 SPRING **Vol.213**

WCS 우송정보대학
WOOSONG COLLEGE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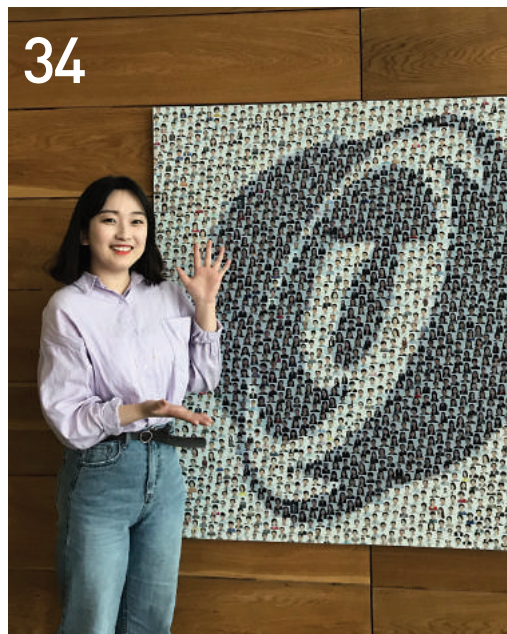
2018 SPRING VOL.213

WOOSONG NEWS | 우송뉴스 | 04-11

- 04 2017 전국고교 제과제빵 조리 콘테스트 개최
- 05 우송정보대학 130개 가족기업과 산학협력 협약 체결
학교법인우송학원 가족기업 (주)KT&G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 06 우송정보대학 LINC+ 사업단 - 2017 산학협력 EXPO LINC+ Festival 에 참가
가족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기술교육원과 산학협력 협약 체결
- 07 철도교통학부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로 자양동 일원 대청소 봉사활동 실시
제 15기 포래상담자 수료식 및 출범식
우송정보대학 글로벌호텔외식과 “연탄나눔 봉사활동” 실시
우송정보대학 가족기업 Marriott International Korea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 08 제7회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2017년도 우송정보대학 취업 토크콘서트 개최
- 09 우송정보대학 철도교통학부, 4월 철도교통안전의 날 캠페인 참여
사회맞춤형 사업 성공을 위한 아이디어 워크샵 실시
- 10 우송정보대학 호텔관광과 국내 최고의 특급호텔(5성급호텔)에 대거 취업
새보미 교육
우송정보대학 글로벌실용음악과가 TJB ‘생방송 투데이’에 출연
- 11 호주 ICHM대학 <Industry Manager> 호주호텔인턴쉽 캠퍼스 리크루팅 인터뷰 실시
가족기관 (사)한국학원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04



34

WOOSONG LIFE | 우송라이프 | 12-25

- 14 스파인레스토랑(서캠퍼스 우송타워W13 13층)
- 15 스키카페(국제경영센터E2 1층)
- 16 자취생 꿀 팁
- 18 사연이 있어 더욱 생각나는 노래
- 20 여운이 많이 남게되는 추천 영화
- 22 학생들이 추천해주는 책
- 24 봄철 뷰티 팁

WOOSONG FOCUS | 우송포커스 | 26-47

- 28 우리는 꿈을 꾸는 친구들
- 30 디자인 영상 콘텐츠학부 UCC공모전 수상
- 32 총학생회장 전격 인터뷰
- 34 디자인영상콘텐츠학부 졸업생 취업 인터뷰
- 36 베트남에서 만난 인연
- 38 외식조리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미국선수단조리팀 합류
- 44 우송튜터링 장학생 상해 해외연수
- 45 2017 전국고교 경진대회 콘테스트 개최
- 46 벤처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컴퓨터정보과
- 47 세계로 나아갈수있는 기회 영어발표경진대회



06



14



40

우송정보대학 WOOSONG NETWORK

원고를 수시 모집합니다.

E-meil hakbosa@wsi.ac.kr

Tel 042-629-6843

WOOSONG NETWORK

발행처 우송정보대학학보사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발행인 정상직

주간 이성환

발행일 2018년 6월

WOOSONG NEWS 우송뉴스

2017 전국고교 제과제빵 조리 콘테스트 개최

01

우송정보대학 일본외식조리학부는 지난 11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이 대학 서캠퍼스에서 '2017 전국고교 제과제빵 조리 콘테스트'와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콘테스트는 '제과제빵'과 '조리' 등 2가지 분야로 나뉘어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2018년 신설되는 일본외식조리학부의 소개와 교교생의 일본제과제빵과 조리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새로운 메뉴창출과 함께 한국대표 명장 양성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전국 고교생의 뜨거운 경쟁 속에 제과제빵 15팀, 조리 15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 행사에 업계 관계자들도 함께 심사에 참여하고 전시회도 관람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콘테스트를 주최한 우송정보대 일본외식조리학부는 국내 유일의 일본제과제빵·외식조리 전공학과이다. 일본외식조리학부 학생들은 일본식 제과제빵 및 조리를 배우면서 일본어와 일본문화까지 익힐 수 있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경험과 국제 감각을 동시에 갖춘 일본인 교수진이 일본의 식재료 관리 능력, 메뉴 디자인 능력, 제과제빵 및 조리 능력을 키워주고 일본 현장실습과 연수도 함께 운영하고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고 있다.

정상직 우송정보대학 총장은 "이번 경진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학생들에게 감사한다. 이번 고교콘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빛났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통해 글로벌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DITOT

문승미 | Mun, Seung Mi

박유림 | Park, You Lim

신지현 | Shin, Ji Hyun

차지현 | Cha, Ji Heon



02

우송정보대학, 130개 가족기업과 산학협력 협약 체결

우송정보대학은 지난 11월 22일 오후 5시 서캠퍼스 우송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의 유망 벤처기업 등 130개의 가족기업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상직 우송정보대학 총장, 존 엔디컷 우송대학교 총장, 이창구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이종포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를 비롯한 130개 기업의 CEO 및 관계들이 참석했다. 대학이 130개나 되는 기업들과 산학협력을 체결한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앞으로 대학, 지자체, 기업 이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정상직 우송정보대학 총장은 "이번 산학협력으로 현장중심의 실무교육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학생들은 130개의 다양한 기업에서 전공분야의 현장적응력과 취업경쟁력을 키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산학협력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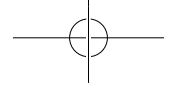
03

학교법인우송학원 가족기업 (주)KT&G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학교법인우송학원(우송정보대학, 우송대학교) 총장 정상직, 부총장 진고환은 지난 11월 30일 오전 11시 40분 서캠퍼스 우송타워 13층 회의실에서 (주)KT&G와 가족기업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MOU를 체결한 양 기업 및 기관은 학생의 학습, 교양 및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주)KT&G 상상유니브의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에 대한 상호협력 하여 사업수행을 위한 보유시설 공동 활용 등에 협의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우송정보대 정상직 총장, 배재훈 산학부총장, 우경환 산학협력단장, 박정화 대외협력단장, 김선일 산학협력실장, 우송대학교 진고환 부총장, 김흥연 창업지원단장, (주)KT&G 이흥주 본부장, 나기석 영업부장 등이 참석하여 내빈소개 및 협약서 서명 및 교환, 인사말씀, 만찬 순으로 진행했다.

상상에 답하다
KT&G 상상univ.



WOOSONG NETWORK



04



우송정보대학 LINC+ 사업단 - 2017 산학협력 EXPO LINC+ Festival 에 참가

우송정보대학 사회맞춤형교육사업단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17 산학협력 EXPO LINC+ Festival 에 참가를 하였다. 이번 행사는 LINC+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선도전문대학 44개 대학과 LINC+ 산학협력 고도화형 선도전문대학 11개 대학이 참여를 하여 2017 LINC+ 사업을 통해 나온 다양한 결실을 전시하는 장이 되었다. 다목적에너지 절약형 자동 가습장치 개발(클린룸설비반), 발전기 충전 경보장치(자동차부품반), 인공지능 탑재 휴머노이드 팔(스마트제조업반), 아두이노를 이용한 보행보조기(스마트제조업반) 총 4개의 작품을 전시하였으며 많은 관람객의 관심을 이끌어 내어 학교의 홍보에도 한 역할을 하였다.



06

우송정보대학 가족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기술교육원과 산학협력 협약 체결

우송정보대학은 4월 10일 가족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기술교육원과 가족기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우송정보대 정상직 총장, 배재훈 산학부총장, 민상기입학처장, 박정화 대외협력단장, 김선일 산학협력실장, 듀얼공동훈련센터 김연식 부센터장, 글로벌명품조리과 편광의교수, 한국기계산업진흥회기술교육원 이은수원장, 한국기계산업진흥회기술교육원 기업협력팀장 박순호 등이 참석하여 내빈소개 및 협약서 서명 및 교환, 인사 말씀,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MOU를 체결한 우송정보대학과 한국기계산업진흥회기술교육원은 일자리 및 취업정보 제공, 한국기계산업진흥회기술교육원 수료인력이 취업시 일학습병행제학위연계형 입학 추천 적극협력, 교육, 연구, 기술, 정보교류 등에 협의하고 함께 상생발전에 노력하기로 했다.



철도교통학부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로 자양동 일원 대청소 봉사활동 실시

지난 11월 29일, 철도교통학부 학생들과 자양동 지역주민 등 총 100명이 평창동계 올림픽 성화 봉송로 일대를 환경미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성화 봉송 행사 전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양동 성화 봉송 노선 구간을 중심으로 주변 상습 투기지역 무단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주변상점 및 자양동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이 담긴 안내문을 전달하는 홍보활동도 실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속 명문 대학으로 발전에 도움을 준 철도교통학부의 위상을 기대해본다.

07 | 08

제 15기 또래상담자 수료식 및 출범식

지난 11월 15일 테크노미디어센터 시청각실에서 제 15기 또래상담자 수료식 및 출범식이 열렸다. 우송정보대학 학생코칭센터(센터장 김수경)는 2017년 11월1부터 11월 8일까지 인간관계의 기본원리와 교우관계의 우정, 협동심, 응집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등에 관한 또래상담자 양성과정을 마쳤다. 이번엔 출범된 총 44명의 학생들은 Friendship, Counselorship, Leadership의 세 가지 정신을 추구하는 일정한 프로그램의 양성교육을 수료하여, 또래상담 선서식을 통해 비슷한 연령대와 경험 그리고 가치관을 기반으로 주변 또래 친구의 고민을 돕고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어 정상적인 성장발달에 도움을 주는 또래상담자의 자세를 갖추었다.

09

우송정보대학, 가족기업 Marriott International Korea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우송정보대학은 4월 26일 가족기업 Marriott International Korea와 가족기업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MOU를 체결한 우송정보대학과 Marriott International Korea는 교육과정 운영 협력 및 취업정보 제공, 교육, 현장실습, 기술 등 정보교류 등에 협의하고 함께 상생발전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Marriott International Korea의 기업초청 취업설명회가 함께 개최되어 글로벌호텔외식과 학생들의 취업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한 유익한 만남의 장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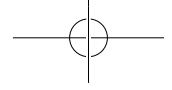
06

사진제공 | 동구청

우송정보대학, 글로벌호텔외식과 “연탄나눔 봉사활동” 실시

지난 1월 2일 화요일, 글로벌 호텔외식과 봉사동아리인 “Woojeong Helpers”는 원어민 교수와 함께 대전 신안동 일대 독거노인들에게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Woojeong Helpers”에서 기획한 학과 재학생 22명과 원어민 교수 4명이, 신안동 일대 7개, 노인가구에 약 2200장의 연탄을 기부했다. 학과 학생들은 원어민 교수와 함께 협업하여 노인가정에 연탄을 배달하고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라는 말씀도 잊지 않고 전했다. Woojeong Helpers 봉사동아리의 지도를 맡고 있는 Scott Curtis 교수는 가까운 곳의 지역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무척 행복했고 학생들이 지역 커뮤니티에 봉사하는 것의 의미가 크다”라고 전했다. Woojeong Helpers 봉사동아리의 회장을 맡고 있는 1학년 김유하 학생은 “학과 동아리에서 연탄봉사활동을 나가서 지역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으로 연탄을 나눠드릴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다.”라고 소감을 말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대전지역에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했다.

07



10

제7회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일시 : 2017. 11. 20(목) 14:00 장소 : 테크노디자인센터 시청각실

한국대표명장 OASD



우송정보대학, 제7회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지난 11월 30일 오후 2시, 테크노디자인관 시청각실에서 「제7회 우송정보대학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우송정보대학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우송정보대학 창업교육센터에서 주관하여 대학 내 청년창업 분위기 조성,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진행을 목적으로 2014년도 부터 시작하였다. 총 12팀이 참가하였으며, F-mode, NSF프로젝트, 심장이 뛰다, 씽투게더, 미니언즈, 칙칙폭폭, 이마고, ETC엔지니어링, 씬마이웨이 등 9팀이 최종발표에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을 위한 바람직한 산학협력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송정보대학 철도교통학부, 4월 철도교통안전의 날 캠페인 참여

우송정보대학 철도교통학부 학생들은 4월 12일 대전역 서광장에서 코레일대전충남본부 철도안전지킴이로서 [4월 철도교통 안전의 달]을 맞아 자발적인 안전문화증진 활동을 유도하고, 철도교통안전에 대한 대국민홍보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하여 현수막을 들고 안내문을 철도이용객에게 나누어 주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코레일대전충남본부 철도안전지킴이는 우송정보대학 철도교통학부학생 30명으로 이루어져 있어 안전캠페인, 비상대응훈련 및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에 대전역, 서대전역, 오송역, 조치원역을 방문하여 코레일 직원들과 함께 시설점검에 참여한다.

12



“사회맞춤형 사업 성공을 위한 아이디어 워크숍” 실시

우송정보대학 사회맞춤형교육사업단은 지난 1월19일부터 1월 20일까지 “사회맞춤형 사업 성공을 위한 아이디어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용인의 협약산업체인 ㈜신성ENG 와 세종의 ㈜동양AK Korea 에 대한 현장방문과 각 반별 “아이디어 워크숍 주제발표”와 “LINC+ 사업 인프라 구축 및 세부 지표”에 대한 사업단 발표로 이루어졌다. 현장방문을 통해 신성ENG의 자동화 시설과 클린룸 설비 시설을 견학하였다. 대표스마트공장으로 선정된 시설 견학을 통해 자동화시설의 고도화 운영시스템을 직접 보는 계기가 되었다. 동양AK Korea의 공장시설에 대한 견학을 통해서는 항공우주용소재생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LINC+ 참여산업체 인사와의 협의를 통해 차기년도 사업 확대방안을 논하였다. 아이디어 워크숍에서는 각 반별 발표 주제로 “융합반 운영 및 학생진로”, “산학협업체 운영 및 교류”, “멘토링 중심의 산학 교류 활성화”,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사회맞춤형 사업을 통한 학과역량강화”, “현장실습과 해외취업융합상”으로 정하여 각반별 LINC+ 사업을 통해 이루어내 성과와 어려움을 해결한 방안에 대해 워크숍을 통해 많은 논의를 하였다.

취업 토크콘서트 개최

우송정보대학은 지난 12월 4일 서캠퍼스 우송도서관에서 ‘일취월장 Job아라 명장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우송정보대학이 주관하고 대전광역시 주최,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후원하는 대학취업역량강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이번 취업 토크콘서트에는 나노하이테크 김병순 대표, 동양AK코리아 이상수 전무, 취업에 성공한 동문이 참석하여 청년취업에 관하여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정상직 총장은 “이번 취업 토크콘서트에 참석해주신 기업체 및 대전경제통상진흥원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대학에서는 기업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전문인력양성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며, 청년취업에 관하여 기업과 학생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전하였다.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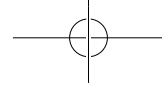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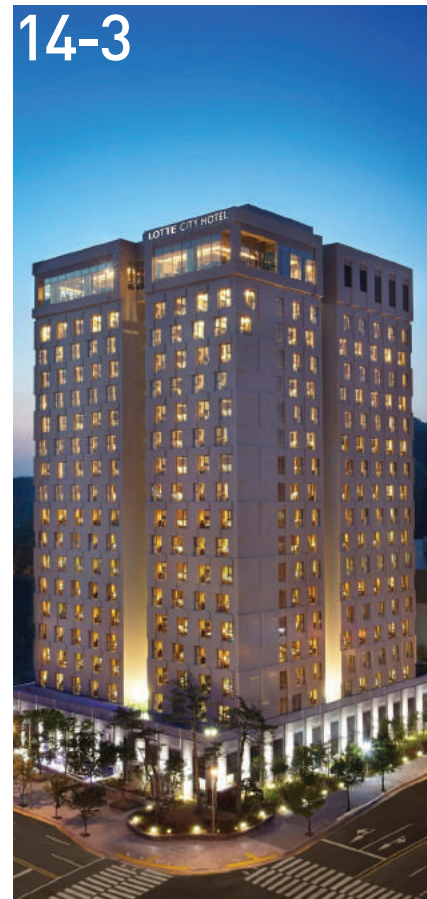
13



09



10



우송정보대학 호텔관광과 국내 최고의 특급호텔(5성급호텔)에 대거 취업

호텔경영과 졸업생들이 국내 최고의 특급(5성급) 호텔에 대거 취업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 졸업생들은 호텔경영과 롯데호텔 브랜드코스반(2018. 2월 졸업)의 학생들로서 서울신라호텔(1명: 임규성), 제주신라호텔(5명: 김희정, 노현아, 박지혜, 임재준, 채새록), 제주롯데호텔(4명: 김아영, 정진아, 지현수, 황지운), 대전롯데시티호텔(1명: 이진주)에 취업되었다 또한 김형준군(2015. 호텔경영과 롯데브랜드코스반졸업)은 삼성GSAT4급을 통과하고 3차면접과 인적성검사, 총지배인 최종면접을 통과하여 서울신라호텔에 공채로 합격(2018.3월)하였다

14-1 제주롯데호텔

14-2 서울신라호텔

14-3 대전롯데시티호텔

새보미 교육

지난 3월 7일(수), 14일(수) 총 2회의 걸쳐 새보미 교육을 실시하였다. 새보미란 새내기돌보미의 준말이며, 학생 코칭센터에서 멘토링 교육 이수 후 새보미 학생들은 2018년 3월 5일(월) ~ 2018년 6월 16일(토) 동안 새내기(신입생)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과 유대감을 형성하여 새내기들간의 친밀한 유대관계 및 응집력을 형성하고 잠재능력을 키우며 정보제공, 조언, 안내 등으로 새나기가 새보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후원자 역할을 한다. 새보미 참여 학생들은 리더쉽 강화의 기회가 생겼고, 새내기 학생들과 끈끈한 연대감 형성의 기대가 크다고 전했으며 현재 221명의 새보미가 활동 중이다.

우송정보대학 글로벌실용음악과가 TJB '생방송 투데이' 에 출연

우송정보대학은 4월 4일 TJB '생방송투데이' 촬영과 관련하여 우송정보대학 글로벌실용음악과를 방문하여 『드림 팩토리』 촬영을 진행하였다. 이날 촬영은 전임교수인 싱어송라이터인 조규찬교수의 보컬강의를 시작으로 뮤지컬 수업, 댄스와 작곡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여러 수업들의 강의로 스케치되었다. 김해지 학과장의 진두지휘 아래 수업의 강의스케치와 더불어 학생들의 야외 버스킹 공연도 펼쳐졌다. 듀엣가요제 출연자인 보컬전공 예미니 학생의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를 시작으로 보컬, 작곡(기악), 댄스전공의 융합공연을 선보였다. 비바람의 짙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열정적 모습으로 댄스 배틀도 선보이며 지나가는 캠퍼스 학생들과 소통을 하며 보람찬 공연을 펼쳤으며, 훌륭한 실용음악과 댄스 전문가를 배출하는 글로벌 실용음악과의 미래가 앞으로 기대된다.

WOOSONG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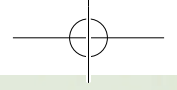
우송정보대학, 호주 ICHM대학 <Industry Manager> 호주호텔인턴쉽 캠퍼스 리크루팅 인터뷰 실시

우송정보대학 글로벌호텔외식과는 호주 ICHM대학 산학협력 매니저 Lauren Frater를 초청하여 3월 20일과 21일에 글로벌 호텔 취업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 3월 22일에는 캠퍼스 리크루팅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Lauren Frater는 20년 이상 호주의 다양한 도시의 특급 호텔에서 근무하고 인사 전문가로 경력을 쌓은 뒤 ICHM대학 산학협력 매니저로서 학생들의 취업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호주전역 호텔에 인턴쉽을 배치해오는 호텔 전문가이다. 이번 특강을 통해 글로벌호텔리어를 꿈꾸는 글로벌호텔외식과 1, 2학년 재학생들이 해외 호텔취업을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 이번엔 선발되는 학생들은 ICHM 산학협력단에 의해 시드니를 비롯한 호주 지역 소재 특급호텔 및 리조트에서 RoomAttendant, F&B 인턴으로 6개월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이후 우송정보대학을 졸업하고 호주 ICHM대학에 진학하여 6개월 전공 교과목 이수 후 또 한번의 호주 호텔 인턴쉽 근무의 기회를 통해 글로벌호텔리어로서의 직무역량을 갖추고 호주 호텔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가족기관 (사)한국학원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우송정보대학은 3월 15일 오전 11시 우송타워 13층에서 가족기관 (사)한국학원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와 가족기관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우송정보대 정상직 총장을 비롯하여 우송정보대학 보직교수와 (사)한국학원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 백동기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상호 협약을 논의하였다. 이날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 우송정보대학과 (사)한국학원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는 특성화학과 입학홍보지원, 졸업생채용에 적극협력, 교육, 연구, 기술 등 정보교류 등에 협의하고 함께 상생발전에 노력하기로 했다.



WOOSONG LIFE



WU 우송정보대학
WOOSONG COLLEGE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 오늘은 교내에 자리 잡고 있는 맛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 레스토랑과 카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같이 볼까요?

EDITOT

서승희 | Seo, Seunghui

W13



솔파인레스토랑(서캠퍼스 우송타워W13 13층)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국내 특급호텔 수준의 맛과 서비스를 겸비한 International Restaurant Solpine을 소개 합니다. 서 캠퍼스 우송타워(W13) 13층에 위치한 솔파인은 격조 높은 분위기에 연회장 파인홀[Pine hall]에서는 각종 세미나, 가족행사, 학술회의, 컨퍼런스 등이 가능하고, 클래식한 분위기에 메인 홀(Main hall)은 와인 셀렉션 강좌, 별실[Private Room]에서는 세미나 및 VIP 리셉션에 어울리는 비즈니스 공간이 마련되어있어요! 외국인 교수들과 국내 및 해외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 오신 국내 교수들이 주방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고 전 세계의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어요. 또, 오랫동안 국내외의 다양한 레스토랑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수와 조교들이 학생들과 함께 고객 서비스를 맡고 있습니다. 메뉴를 한번 볼까요? 메뉴가 아주 다양 한데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이 생겼네요! 레스토랑 점심 식사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이며 저녁 식사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예요! 시간을 잘 확인하고 들려보길 바라요!

영업시간 및 문의

솔파인 레스토랑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타워(W13) 13층

TEL 042-629-6610

영업시간 AM 11:30 ~ PM 2:00

/ PM 5:30~PM 9: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솔카페(동캠퍼스 국제경영센터E2 1층)



다음은 가 볼 곳은 동캠퍼스 국제경영센터(E2) 1층에 위치한 자양카페, 바로 솔카페 입니다! 학생들의 지갑 사정을 아는 듯 저렴한 가격에 음료 및 차 스낵류 제과 등을 판매하고 있어요. 메뉴를 보면 스무디, 라떼, 더치, 티, 등 종류도 다양하고 젤라또 까지 판매하고 있는데요. 솔카페에 장점은 직접 만드는 음료가 손에 꼽히는데, 그 중 TOP은 바로 콜드브루! 사전을 보면 [분쇄한 원두를 상온이나 차가운 물에 장시간 우려내 쓴 맛이 덜하고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커피] 라고 하는데 솔카페는 직접 장시간 원두를 우려내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선물용으로도 딱인 듯 합니다! 두 번 째 장점은 분위기 입니다! 전체적으로 아늑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많은 학생들이 과제나 회의를 한답니다.

공부에, 과제에 지친 여러분!

허기진 배를 채우며 시간을 보내기 딱 좋은 솔카페를 추천합니다.

영업시간 및 문의

솔카페

대전광역시 동구 백룡로 59(자양동101-17) 국제경영센터(E2) 1층

TEL 042-629-6560

영업시간 AM9:00 ~ PM7: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나의 첫 자취!

EDITOT

문승미 | Mun, Seung Mi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부하러 타지에서 온 친구들, 성인이 되어 자취를 시작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첫 자취의 설렘만큼 필요한 물건이 꼭 있기 마련이죠? 주변 친구들이 자취를 시작하면서 가장 추천한 아이템 몇 가지를 가져와 보았어요! 한번 확인 해 볼까요?



멀티탭 | PC 주변장치 때문에 콘센트가 부족하거나 거리가 닿지 않을 때 사용해요!

MULTI-TAP

3

COFFEEPOT

2 커피포트 | 전기를 이용하여 열을 가해 1~2분 내에 물을 끓이는 포트입니다. 일반 빌라에서는 정수기가 구비되어있지만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이용해서 위생에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밖에 나가지 않아도 바로 뜨거운 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이 아이템을 꼭 pick! 하세요.



1 창문 스톱퍼 | 창문이 일정 너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해주는 스톱퍼! 랍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대전이라도 안전은 꼭 신경 써야 해요.

WINDOW-STOPPER



5 수납공간 | 교복을 벗고 자취를 시작하는 순간 옷을 정~말 많이 사게 될 거예요! 안 그래도 좁은데 옷 까지 쌓이면 너무 지저분해 지잖아요. 정리는 하고 삽시다!



4 전자레인지 | 식품을 가열하는 조리 기구입니다. 요리를 자주 해 먹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아이템은 필수죠! 음식을 데우거나 해동 시킬 때 아주 유용합니다.



8 DIFFUSER

디퓨저 | 내 집에 쾌쾌한 냄새가 난다면? 방향제를 놓는 것을 추천해요. 잡냄새를 없애고 향긋한 냄새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자주 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MICROWAVE
OVEN

ROUTER

6 공유기 | 1개의 회선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이며, 인터넷 선을 꽂으면 인터넷 연결이 돼서 나만의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됩니다!



7 제습기 |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잦은 장마에 땀에 습하고 더워서 곰팡이가 많이 생길 거예요! 미리 예방해서 쾌적한 방을 유지 해볼까요?

DEHUMIDIFIER





오원(O.WHEN) -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담은 노래인데, "사랑의 감정엔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어두운 밤하늘에 유난히 반짝이는 별들이 찬란한 꿈을 꾸듯 나에게 쏟아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고 싶었어요."라며 오원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이라고 해요! '제일 밝게 빛나는 그 별이 바로 너야 제일 밝게 맴도는 그 곳에 달을 거야.' 가사도 예쁜 <Fall In Love>! 퇴근길에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사연이 있어 / 더욱 생각나는 노래

윤판판 - 니가 보고 싶은 밤

의미 없이 전화기만 자꾸만 들었다 났다 이 밤이 또 지나가는 게 너무 아쉬워' 이 노래는 짝사랑 했던 친구를 생각하면서 들었던 곡인데요! "우리는 어쩌면 마음을 표현하는 것조차 계산하는 현실에 살고 있는데, 지금 누군가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곡으로 그 현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는 마음만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를 담았어요.

작사 작곡, 윤판판! 설레는 목소리, 윤판판! 믿고 듣는, 윤판판!



문명진 - 잠 못 드는 밤

문명진이 직접 작사한 잠 못 드는 밤 이란 곡입니다! '니가 내게서 멀어질 때 좀 그때 언젠가 아마도 별이 빛나고 좀 슬프고 그랬지' 하지만 제대로 알려지기엔 시간이 걸렸어요. 이때 <라디오 스타>에 나오게 된 이주노에게 "형, 라디오 스타 나가면 제 얘기 한 번만 해주세요.."라는 부탁을 했는데, 이주노는 "노래를 아주 잘 하는 후배가수 문명진이 있다."라며 끝까지 홍보를 해 주었고, 비로소 많은 관심을 받게 된 문명진은 7년 만에 디지털 싱글 앨범 '잠 못 드는 밤' 이란 노래를 발매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R&B 끝판왕인 문명진!! 매력적인 목소리에 취하고 싶다면 지금 플레이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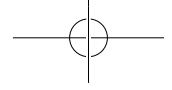
WINNER - ISLAND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우리는 100% 자유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오는 '자유'에 대한 갈망을 담아냈다."라고 소개했어요. 그에 맞게 '회색 빌딩 감옥 안에서 널 구해줄게 파란 하늘 모래 위에서 그냥 쉬어가면 돼.' 라는 가사가 나와요! 트로피컬 장르의 워너 자작곡으로 '흥'을 지향하는 곡입니다! 저는 지칠 때 이 노래가 머릿속을 맴도는데, 노래를 들으면 바로 자유를 원할 만큼 신나는 곡이랍니다! 삶에 지친 여러분 ISLAND 들어보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보는게 어떨까요?!

EDITOT

문승미 | Mun, Seung Mi





WOOSONG NETWORK

The Shape of Water, 2017

세이프 오브 워터 : 사랑의 모양

이 영화는 판타지 장르를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데요! 괴물 전문 배우 더그 존스가 괴생명체 역할을 맡으며 더욱 실감나는 연기는 물론, 엘라이자 에스포지토 역을 맡은 샐리 호킨스는 목소리를 잃은 역이지만 그녀의 표정과 행동으로 인해 더욱 섬세한 감정연기를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연출은 판타지 속에서 독특한 로맨스를 더욱 매력있게 하여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1960년대 우주 개발 경쟁이 한창인 비밀 실험실에서 일하는 언어장애를 가진 청소부 엘라이자 (샐리 호킨스)가 실험실에 잡혀온 몸 전체가 비늘로 덮인 괴생명체(더그 존스)에게 호기심을 가지며 시작 됩니다. 영화를 보면서 언어장애를 가진 엘라이자에게 편견 없이 대하는 괴물의 행동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대한 차별과 편견을 버리고 주인공들은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랑을 보여주는데요. 영화가 주는 메시지를 대해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상하는 건 어떨까요?



Unable to perceive the shape of you,
I find all around me,
your presence fill my eyes with your love,
it humbles my heart,
for you are everywhere.

아주 간단한 말인데

이해해주지 못했어

A Silent Voice, 2016

목소리의 형태

《목소리의 형태》中



이번 영화는 한 일본의 애니메이션으로 일본만화 원작을 야마다 나오키 감독이 영화화하여 제작한 목소리의 형태 입니다! 소통과 함께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해석보다는 상대방과의 대화로 관계를 해야하는 걸 깨닫게 하는 애니메이션으로 추천하는 영화이니 감상해보세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소녀 '나시아마 쇼코'와 그런 그녀를 괴롭힌 남학생 '이시다 쇼야'가 주인공인데요.쇼야의 학교로 쇼코가 전학을 왔지만 귀가 들리지 않는 쇼코에게 쇼야는 짓궂은 장난을 쳤고, 그의 괴롭힘에 지친 쇼코가 다시 전학을 가면서 반 모두가 책임을 떠넘겨 왕따가해자가 된 쇼야는 6년후 그녀를 찾아가면서 영화가 전개됩니다! 특히 목소리의 형태에서 결말 전 마지막 부분은 지금까지 죄책감과 자포자기로 타인과 소통하기를 거부했던 이시다 쇼야가 주위를 돌아보며 다시 주변을 듣고 느끼기로 결심하는데요. 영화 속 에서 사람들에게 엑스표시가 붙여진 연출도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이면서 다시 한번 그의 소통에서의 문제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Sing Street, 2016

싱 스트리트(2016)



간절히 원하고 열망하는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시작된 주인공 '코너'의 음악이 어느새 그의 청춘의 한 자락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려낸 감성 영화입니다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간 '코너'는 모델처럼 멋진 '라피나'를 보고 첫 눈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코너'는 '라피나'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에 밴드를 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급기야 '라피나'에게 뮤직비디오 출연 제의하여 승낙까지 얻어내는 데요. '코너'는 어설픈 멤버들을 모아 밴드를 결성하였고 음악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서투르고 불안정한 모습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원스와 비긴어게인을 제작한 음악 영화의 거장 존 카니 감독이 참여한 작품인데요. 청소년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영화라서 그들만의 아픔과 극복한 후의 성장과정이 담겨져 있는데요. 특히 인상깊은 장면 중 하나인 코너가 무대 위에서 혼자만의 상상을 하는 장면은 그가 원하는 상황이면서도 현실과는 반대되는 상상으로 코너가 마냥 행복하지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자신의 길을 스스로 나아가는 영화 싱스트리트 입니다!

여운이 많이 남게되는 추천 영화

당당히 맞서고

뒤돌아 보지 마

한번 결정하면

뒤돌아 보지 마

”

《싱스트리트》

EDITOT 박유림 | Park, You Lim
DESIGN 장재훈 | Jang, Jaehun





학생들이 추천해주는 책

EDITOT

박유림 | Park, You Lim

DESIGN

김계리 | Kim, kye ri

짧은 동화 긴 생각 3 (작가/이규경)

지금 소개하는 책은 작은 동화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제 1장 생각이 열리는 이야기부터 제 4장 생각이 커지는 이야기까지 총 4장으로 이루어졌지만 파트마다 30편 이상의 단편적인 이야기들로 아기자기한 그림과 함께 구성된 책입니다. 제목 그대로 짧은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요. 작품 중에 "한개의 빵으로 행복 할 수도 있고 한개의 빵으로 불행 할 수도 있어. 행복과 불행은 멀리 있지 않아. 우리 마음 속에 있어"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 있는 지 고민을 하게 된 내용이었어요. 이처럼 비유적인 표현들로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기만 한 주제는 아니라서 평소에 책을 잘 읽지 않은 분들에게도 추천하는 책입니다. 또한 단편의 이야기 속에서 주는 작은 감동과 힐링을 위해 한번 읽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추천인 허수연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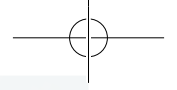
자신감을 주는 완벽한 대화기술 (작가/다카니시 케이이치로)

성인이 되면서 미래를 위해 대화능력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요즘 같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게 중요해지는 시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퍼블릭 스피킹을 위한 4가지 논리력, 표현력, 이해력, 대응력을 주제로 보기 쉽게 나누어져 있고, 좋은 대화 상대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설명해줍니다. 또한 "하루아침에 말을 잘하는 사람은 없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등 우리가 생각하는 대화에 대한 예의나 착각한 정보를 풀어주기도 하니 이런 종류의 책을 읽어보고 풍부한 대화능력을 가질수 있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위저드 베이커리 (작가/구병모)

소원을 이루어주는 쿠키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빌고 싶나요? 말을 더듬는 한 소년이 집에서 오해를 받고 도망나와서 자신을 쫓는 이들을 피해 불이 켜져있던 위저드 베이커리에 가게 됩니다. 사실 베이커리의 주인은 마법사였습니다. 결국은 마법사가 그를 숨겨주었고, 작품 속 내용은 소년이 자신을 숨겨준 마법사를 도와서 마법의 쿠키를 팔 수 있게 베이커리 사이트를 만들고 난 후를 담았습니다. 특히 작품 속에 등장하는 마법의 쿠키 중에 흥미로운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머랭쿠키나 시험을 잘 보게 해주는 푸딩 등 저희가 평소 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사소하지만 평소에 생각하는 소원을 쿠키로 이룬다는 대리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책 속 분위기 또한 판타지스럽게 신비롭고, 미스터리한 다양한 요소가 등장하여 책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위저드 베이커리는 특이하게 결말이 2가지 인데요. 결말 외전은 책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말더듬이 소년이 마법을 부리는 제빵사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면 위저드 베이커리를 읽어보세요!

추천인 박유림 학생



환절기로 접어들면서 수분 손실로 인한 예민한 피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들과 관리법! 피부가 건조해지면 탄력을 잃고 자주 잔주름이 생기는 등 각질이 남아 피부를 뜨게 하고 화장을 예쁘게 할 수 없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방법들을 실행해 봅시다!

첫째 | 몸에 좋고 맛있는 봄철과일!

피부에 부족한 수분감을 채워주기 위한 솔루션 중 하나인 과일을 먹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자주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한번 참고해볼까요?

1. 사과

새콤달콤한 사과는 시중에 구하기도 쉬우며 먹고 마사지에 이용하는 등 여러 방향으로 좋은 과일입니다. 피부에 마사지를 하면 사과의 잔여물들이 피부에 좋은 작용들을 하는데요! 사과에서 나오는 효소작용이 피부에 수분을 유지와 보충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2. 딸기

새빨간 제철 딸기는 비타민C, 펙틴, 안토시아닌 성분 등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항산화 기능을 높여주고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며, 멜라닌 색소를 제거해서 피부미백과 피부 탄력에 좋은 과일입니다!

3. 블루베리

피부에 좋은 과일하면 생각나는 것 중 하나인 블루베리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노화 방지에 좋고 피부 탄력에 좋은 과일인데요. 특히 요플렛과 같이 먹는 방법은 좋은 과일 섭취방법 중 하나입니다!

봄철 뷰티

봄철 관리가 필요한 당신에게

두번째 | 봄철에 해야 하는 피부관리!

매년 봄은 황사와 꽃샘추위 등으로 피부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 봄철에 대비할 수 있는 피부 케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자외선 차단제는 봄보다는 여름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봄에는 오존층이 다른 계절보다 얇아져 지상에 오는 자외선양이 많아 지니 더욱 조심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잊지 말고 자주 사용하는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보습 수분 관리 해주기

봄철의 아침저녁은 기온이 낮아져 춥고 낮에는 따뜻해지는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심한 기온차가 생겨 피부 속 당김을 느낀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당김을 느끼시는 분들은 꼭! 겨울에 자주 신경 쓰는 보습을 봄에도 사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분을 보충해주고 진정을 위한 시중에 파는 마스크 팩이나 크림을 사용하여 겨울철만큼 봄에도 충분한 수분관리를 해주어 피부를 보호합시다!

세안 꼼꼼히 하기

봄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몰래 사투를 벌이는 피부에는 온갖 꽃가루와 먼지들이 달라붙게 되는데요. 그러니 그런 피부를 위해 외출 후 손과 발뿐만 아니라 세안도 확실히 해주어야 합니다! 대신 너무 세안을 자주 하는 것과 피부를 세게 문지르면서 하는 세안은 피부에 자극을 주니 추천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자극이 적은 세안 제품으로 미지근한 물로 꼼꼼히 오랫동안 씻어주며 팩 같은 경우는 3~4일에 한 번씩 스크럽 제품은 1~2주에 1번씩 사용하는 것이 피부에 좋으니 한번 참고해보세요



생활 속 뷰티!

눈가에 크림을 바를때

눈꼬리에서 눈물샘 방향으로 바르며 눈물샘과 눈썹사이를 강하게 눌러주고 둥글게 마사지하며 아이크림은 손으로 볼근처를 당겨서 눈꺼풀이 뒤집어지는 곳까지만 발라줍니다!

참고 '얼굴의 피부는 위로 당기는 것 보다 평면으로 당기고 입가만 아래에서 위로 당겨주기'

클렌징오일로 클렌징하기

수용성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총 2차로 세안을 하는데요. 1차는 물을 묻히지 않고 얼굴 안쪽에서 바깥 쪽으로 문질러주고 2차로 적당한 미온수와 함께 1~2분 짧고 확실하게 세안을 해줍니다. 오일에 물을 더하면 세정력은 낮아지지만 보습력은 올라갑니다!

EDITOT

박유림 | Park, You Lim

DESIGN

장재훈 | Jang, Jaehun

Spring Beauty Tip

24

봄철 뷰티 꿀팁

사과 딸기 블루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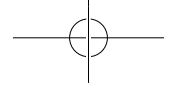


25



WOOSONG FOCUS

WAE 우송정보대학
WOOSONG COLLEGE



WOOSONG NETWORK



우송정보대학
글로벌 실용음악과 18학번
반하림

창원대학교 무용 공쿨 솔로특상

Ck공쿨 실용예술부문 솔로특상

제1회 대전전국실용예술제 단체 전체대상

대전예술제 우송정보대학 은상

전라북도 통일 댄스 퍼포먼스대회 은상

김해가야문화공쿨 특상

호서예술전문학교 NEW AGE vol.4 준우승

KAC 한국예술원 스트리트 콘테스트 준우승

유성온천축제 핫스프링 댄싱 퍼레이드 은상

우송정보대 댄스배틀 Winner

EDITOT

문승미 | Mun, Seung Mi

우리는 꿈을 꾸는 친구들

Q 학교 지원 동기가 있나요?
춤을 좋아하고 입시3년 동안 열심히 했었지만 미래에 딱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잘 몰랐었는데, 우송정보대입시 설명회에서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을 보고 춤 말고도 관련된 음악 작업이나 행사 기획 같은 여러 가지들 을 배우면서 진로에 대해 더 폭넓게 생각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학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시 시험이 코앞인 9월 말에 발목 인대를 다쳐서 수술해야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고, 그때 아예 걷지를 못해서 재수를 해야 할 지 많이 절망하고 있었는데 제가 대전예술제에서 우송정보대학 은상을 수상 했었던 경력이 있어서 앉아서 추는 안무로 우송정보대학에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김스를 하고 울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가 많이 기억에 남아요. 다행히 수시에 합격했는데 그 때 좋게 봐주시고 많이 격려해주신 교수님, 선배님들께 정말 감사해요.

Q 춤을 시작한 계기가 있나요?
초등학교 때 tv에 나오는 K-POP 춤을 곧잘 외워서 따라했었어요. 어릴 땐 학교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 칭찬 해 주시는 게 신기하고 좋아서 취미로 춤을 쳤었는데 고등학교 입학 할 때 즈음 진지하게 춤을 시작하고 싶어서 그때부터 스트릿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무대가 너무 멋있었어요! 어떻게 무대를 꾸미게 된 건가요?
뷰티디자이너와 와 콜라보로 진행하게 된 공연이었는데 저희 과 권기준 교수님께서 어울릴 것 같다고 추천 해 주셨고, 저는 무대에 올라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수술하고 처음 올라간 무대였기에 준비기간이 짧아서 아쉬움이 있지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Q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 인가요?
아직 자신은 없지만 춤과 함께 음악 프로그램도 꾸준히 배워서 직접 리믹스하고 만드는 것도 해보고 싶어요.

Q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요?
하우스라는 장르가 너무 좋아서 계속 배워가고 싶고 학교생활이 바빠지만 스트릿 댄스 씬 활동도 계속 하고 싶고, 제 춤 스타일을 찾아가고 댄서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지금의 목표입니다!



WOOSONG FOCUS

Q 학교 지원 동기가 있나요?
제 전공인 댄스 뿐 만 아니라 직접 노래를 작사 작곡 및 편곡을 하고 다른 분야 쪽에서도 배울 수 있어서 저의 진로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한 것들에 대해 많은 배움을 받고자 우송정보대학에 지원했습니다.

Q 춤을 시작한 계기가 있나요?
어릴 적 무대에서 춤을 추고 나면 관객 분들이 제 춤을 보고 환호해주시고 박수를 받았던 기억이 정말 좋아서 앞으로도 더 노력하여 이것보다 더 큰 무대에서 호응을 받고 싶어 이를 계기로 춤을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Q 무대가 너무 멋있었어요. 어떻게 무대를 꾸미게 된 건가요?
먼저 권기준 교수님 덕분에 좋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뷰티디자인학부 교수님과 선배님들이 도움을 주신 메이크업이 저의 무대와 함께 어우러져 더 감성적이고 좋은 분위기로 표현되어 많은 호응을 받아 기뻐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요?
우선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면서 훌륭한 교수님을 통해 제 실력을 향상시키고 교수님들에게 전공 관련 진로에 대해 지속적인 상담을 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해보며 제 적성에 맞는 전공을 더 파고들어 꿈을 이루기 위해 성장 할 계획 중입니다



우송정보대학
글로벌 실용음악과 18학번
박정원

2017 전국술용무용경연대회 Fe-Story

고등부 개인 은상

2017 대전전국실용예술제 고등부 개인 장려상





IDEA

UCC

CONCEPT

이송희 이현경

디자인·영상콘텐츠학부 UCC공모전 수상

지난 12월 12일 디자인 영상콘텐츠 학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주최한 개인정보 아이디어&해택사례 공모전UCC에서 수상하였습니다. 1학년 이송희, 이현경(외 2명)을 만나 공모전 준비과정과 수상까지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는데요, 공모전을 준비하는 우수정보대학 학생들에게 주는 팁을 한번 들어볼까요?

EDITOT

신지현 | Shin, ji hyun

Q 이번에 참가한 공모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번 공모전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이용하면 나타나는 아이디어&해택사례와 스스로 확인하고 지킬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ucc 공모전입니다.

Q 어떤 주제로 참여하였나요?
여러가지 공모전이 있었는데 고민을 하던 중 개인정보가 우리 주변에서 항상 볼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다양한 정보를 알아 보며 좋은 경험을 얻고자 공모전에 참여했습니다.

Q 주제를 정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요즘엔 개인정보 유출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 같은 범죄가 만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라는 문제에서 나올 아이템들이 많아보였습니다. 당장에 우리들도 직접적인 피해자이니까요.

Q 공모전 준비 과정을 알고싶어요.
먼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정책에는 무엇이 있나 찾아보고, 그것을 누구에게나 받아들이기 쉬운 내용으로 녹이려 팀원들과 끝없는 브레인스토밍 작업을 했습니다. 대주제가 정해지고, 그것을 어떻게 나타낼지 방법을 찾아낸 후에는 대략적인 스토리보드를 짰고, 영상에 맞는 소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이후엔 촬영과 교수님의 첨언으로 꼼꼼하게 편집을 했고요.

Q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어렵거나 힘든 점이 있었나요?
4명의 팀원이 각각 남, 여, 노, 소로 분하여 연기했습니다. 이제 막 대학생활을 시작한 20대들이 연기하기에는 난도가 높은 연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어색한 부분에서는 지적도 몇 번 받았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많은 조언을 받아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Q 공모전에서 수상하셨을 때의 기분은 어떠하였나요?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공모전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후에 주변사람들한테 상 받았다고 알리고 다녔어요. 진짜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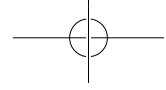
Q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도 계속 다른 공모전에 도전 하려고 하고 있고, 졸업 전까지는 계속 참여 할 생각이예요. 많은 공모전을 참여하면서 팀원들과 함께 끌어주고 서로 도우며 공모전의 수상에 있어,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Q 전공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전공 특성상 팀 작업이 많습니다. 하나처럼 움직여야 큰 시너지를 내는 영상계열 특징이기도 하지요. 때문에 '같이 잘 하자'라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끌어주고, 따라가고, 거기에 실력 있는 전공 교수님들이 받쳐 주고 있으니 더할 나위 없어요.

Q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는 우수정보대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공모전을 시작하던 처음 열정과는 달리 도중에 지칠 때가 분명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 공모전을 준비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힘든 시기를 지나 다양한 경험을 한다면 공모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집작업(상)과 아이디어회의(하) 중인 이송희, 이현경 학생



지난 10월 26일 총학생회 후보 선출 진행이 되면서 우송정보 대학을 이끌어 갈 제 34회 총학생회 대표가 선정 되었습니 다! 이번 후보는 단독 후보였지만 총학생회의 자질을 돈독히 보여준 결과였을까요? 과반수 이상의 찬성 득점을 얻게 되 면서당선된 유병조 총학생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포 부를 들어보았습니다.

EDITOT

차지현 | Cha, Ji Heon



우리는
꿈을 꾸는
친구들

32

34

총학생회장
유병조 (27)
철도토목과
충남고등학교 졸업

부총학생회장
이경희 (22)
병원행정과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우송정보대학
총장님과
34회 총학생회



총학생회

사무실 위치 : E2
전화번호 :
042)629-6312

Q 학우들에게 총학생회의 역할을 소개해주세요.

학교의 학생 대표로서 학우들의 대학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에 생기는 불편한 점들을 건의사항을 통해 전달하고 해결하여 학우들의 대학생활에 많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Q 선거 때 내세운 공약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학교안의 작은 행사를 개최하여 학생들과의 교류를 왕성하게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플리마켓' 을 열어 각 학과 마다 매주 돌아가면서 안 쓰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 매매나 교환 등을 하는 일종의 '벼룩시장'처럼 진행해 보자 합니다.

Q 이번 총학생회 슬로건은 무엇인가요?

제 34대 총학생회의 슬로건은 바로 '해술' 입니다. 해술은 '해처럼 밝고 술처럼 푸르게' 라는 순우리말인데요. 총학생회의 이미지가 딱딱한 모습이 아닌 가족같이 화기애애하고 편안한

모습을 해처럼 밝은 학생회가 되어보자 라는 뜻과 함께, 늘 푸른 소나무의 뜻처럼 지조와 절개를 가진 자세로 학생을 위한 학생회 일에 이바지 할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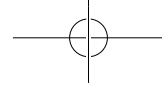
Q 앞으로의 1년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 인가요?

앞서 말했듯이 학생들의 복지를 위하여 많은 이벤트와 편의 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학생들의 의견 하나하나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와,두발 뛰는 모습 보여드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신입생과 더불어 재학생들에게 대학교라는 사회의 출발점에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약속드리며, 학생회의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 노력하여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우송정보대학 최고의 총학생회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3



WOOSONG NETWORK

WOOSONG FOCUS

"연합뉴스, 새내기 하정인입니다"

디자인 · 영상콘텐츠학부 16학번 하정인

자신의 진로, 취업에 대한 걱정이 많은가요?, 포트폴리오 준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가요? 같은 고민을 공유하면서 먼저 자신의 꿈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우송정보대학 디자인 영상콘텐츠학부 졸업생 하정인 선배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EDITOT 문승미 | Mun, Seung Mi

Q 디자인영상콘텐츠학부에서 영상콘텐츠 전공이시잖아요. 영상을 전공으로 하신 계기가 있나요?

A 제 꿈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프로듀서였어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다큐멘터리를 즐겨보셨는데 저도 따라 옆에서 보던 기억이 있어요. 그 계기로 다큐멘터리를 즐겨보며 좋아했고, 거기에 더 나아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손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픽션이 아닌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시사, 자연, 문화예술, 역사, 휴먼 등 다양한 장르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자연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요. 보다보면 자연의 웅장함에 매료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르를 다루고 싶고, 그에 대해 이루려면 영상의 기초와 기본에 대해 잘 알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Q 취업(포트폴리오)은 어떤 식으로 준비 하셨나요?

A 먼저 포트폴리오 즉, 릴을 만들 때 정말 고생이었어요. 제가 이때까지 만들어 온 영상물을 한데 모아서 보여주자니 어떻게 보여줄지 그 생각에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교수님들의 조언과 많은 시행착오 끝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영향이 컸던 것은 아무래도 취업준비생들의 가장 큰 고민인 자기 소개서였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크게 고민했었는데요. 혼자서 쓰기에는 부족한 점이나 필요한 점을 캐치하기에는 무리였는데 그 때 학교 내의 취업준비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쓴 자기소개서에 대해 첨삭은 물론 보완할 점까지 세세하게 챙겨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어 제 꿈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Q 학회장으로도 활동하셨는데! 힘든 점은 없었나요?

A 물론 처음 맡아 본 학회장이라는 자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굉장히 부담 스러웠지만 교수님, 조교님, 선배님 등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많은 격려와 조언들을 해주셨고, 또 학우여러분들 또한 저를 잘 따라주고 좋게 바라봐주시는 등 많은 분들의 관심에 힘입어 큰 어려움 없이 활동하였습니다!

Q 향후계획이나 목표에 대해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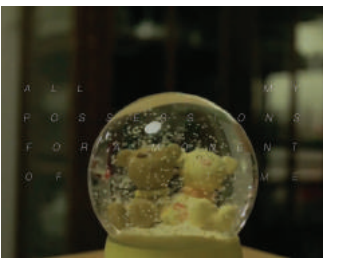
A 저의 목표는 앞서 말했듯이 다큐멘터리 디렉터입니다. 나중에 제가 만든 영상을 보고 제가 느끼던 그 픽션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모습에서 느끼던 웅장함과 황홀감을 시청자들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크게 성장하는 것 입니다.

Q 사람들에게 우송정보대학 디자인영상콘텐츠학부의 자랑 좀 부탁 드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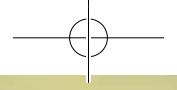
A 우송정보대학 디자인영상콘텐츠학부는 시각, 영상, 귀금속 총 세 개의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는 학부인데요. 처음 자신의 전공을 정하고 막상 다녀보니 생각과 달리 혼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고 해요. 하지만 디자인영상콘텐츠학부는 입학 후 처음 학기 때에는 전공을 나누지 않고 각 전공별 과목을 조금씩 수강합니다. 그 뒤에서야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정말 확고하게 전공을 목표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전공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학생들에게 자신에게 적합한 전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자신의 전공을 선택할 때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어 좋은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고 있을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꼭 목표를 가졌으면 한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든 어떤 방법이든지 그 목표를 향해 길이 이어진다고 해요. 부디 후배 분들도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우송정보대학 학생들 파이팅!!!!



우송정보대학 16학번 하정인 포트폴리오



베트남에서 만난 인연

지난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3박 5일 동안 우송정보대 학생들이 사회봉사단 프로그램으로 베트남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학과마다 면접 후 학생들을 선발하여 총 11명의 학생들이 다녀왔는데요! 이번 베트남 해외봉사활동을 다녀온 제과제빵과 박연실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Q. 이번 해외봉사활동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전부터 해외봉사 활동에 관심이 있었는데 베트남 고엽제 피해에 대하여 알게 된 이후로는 조금이나마 직접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되었어요. 고엽제 피해에 대한 많은 글을 봤지만 현장에서 느껴보고 싶었고 실제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 베트남에서의 봉사활동 일정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베트남에서의 봉사활동은 주로 보육원에서의 시간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흘러갔어요. 고엽제 피해어린이 보육원인 우정마을을 방문한 후 보육원 청소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과 여러 활동을 했는데 어색했던 시간도 잠시, 금세 어울릴 수 있었어요. 3일 째는 관광이 있었는데 패키지처럼 짜여진 일정 안에서 단체로 이동해서 편했고 유명 관광지 위주로 알차게 관광할 수 있었어요.

Q. 봉사활동을 다녀온 후에 느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보육시설에 가기 전에 그들과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을까, 보육시설의 환경이 열악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제 걱정과는 정 반대로 보육시설은 보통의 학교 같았고 언어가 달라 부족한 영어실력과 몸짓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아이들이 매 순간을 소중하고 감사히 여기는 모습을 보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밝게 인사해주고 손을 꼭 잡아줄 때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더라고요. 특히 저를 많이 따랐던 효영만이라는 아이가 선물이라며 저를 그린 그림을 주며 배웅을 해주던 모습은 이번 봉사활동의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Q. 해외봉사활동을 준비하는 후배들을 위해 조언 한 마디 해주세요!

사실 저에게는 봉사활동을 해외로 간다는 것부터 큰 도전이었고 언어의 장벽으로 부담감도 컸었습니다. 하지만 해외봉사활동을 다녀와서 성취감을 많이 느꼈고 다른 해외봉사활동도 찾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봉사활동에서 만난 아이들과 생각보다 많이 정이 들었고 그 인연이 소중해지면서 봉사활동에 매료되었어요.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다른 나라를 위해 봉사를 다녀오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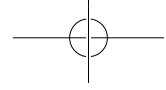
01. 베트남 보육원(우정마을)에서 활동중인 모습

02. 보육원 청소중인 모습

03. 봉사활동 단체사진

EDITOT

서승희 | Seo, Seunghui



2018년 2월9일(금)부터 2월25일(일) 약 16일 동안 진행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열정과 환호의 순간들을 기억하시나요??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을 통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건강, 체력, 컨디션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송정보대학 외식조리과 학생들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미국선수단조리팀에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EDITOT

차지현 | Cha, Ji H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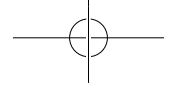
외식조리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미국선수단조리팀 합류

지난해 7월 우송정보대학 외식조리과는 미국올림픽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외식조리과 교수진 및 학생들의 미국 국가대표조리팀에 합류를 추진하였는데요. 미국 국가대표팀의 조리팀으로 합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afe Sports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Safe Sports 시험이란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이를 돕는 지원단 간 지켜야 할 규칙 및 성폭력 예방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치르는 시험입니다. 외식조리과 학과장인 김태형 교수님 등 세 명의 교수진과 7명의 학생들이 Safe sports 시험에 대한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뒤 지난해 9월 전원 모두 시험에 통과하여 이곳 평창동계올림픽 미국선수단조리팀의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열정과 환호의 순간의 뒤에 숨겨진 선수들의 식단과 영양을 책임지고 도맡은 우리 학생들의 조리팀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어볼까요??

사진제공: 2018 평창동계올림픽

<https://www.pyeongchang2018.com>

**우송정보대 외식조리과 16학번 안효경(22세 여)****Q 참여하게 된 경로나 계기 알려주세요!**

우송정보대와 USOC의 MOU체결 하였고, 교수님께서 같이 가자고 하셨을 때 처음에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후에 그래도 기회를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을 때 교수님께서 한번 더 기회를 주셔서 조금의 두려움을 받아드렸지만 기본적인 시험을 본 합격하여 조리팀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미국팀 대표 식단을 맡았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하신 일들이 궁금합니다.

키친은 강릉선수촌, 원주대학교, 용평리조트 이렇게 총 3개의 주방이 있었습니다. 그 중 원주 대학교 안에 있는 주방은 제가 일했던 주방으로 재료의 세척, 손질, 썰기, 계량, 등을 하는 PREP을 맡아 나머지 2개의 주방에 보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강릉선수촌과 용평리조트 주방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PREP하여 보낸 재료들로 선수들이 오기 전 조리하여 제공해주는 주방이었습니다.

Q 선수들이 가장 좋아했던 식단은 무엇인가요?

제가 있었던 주방은 직접적으로 선수들을 보기 힘든 PREP전용 주방이라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주로 PREP하는 양으로는 미트소스를 가장 많이 만들었고, 사용하는 재료로 보았을 때는 닭가슴살과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소고기 이렇게 4가지 주로 PREP했던 재료들이어서 요리하는 스타일로 통해 지중해식, 멕시칸식, 태국음식, 한국음식, 등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Q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았던 조리팀 에피소드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었죠. 'DO NOT COOK' 은 제가 있었던 주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PREP을 하는 주방이라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이외에는 만들지 말고 신선한 상태의 재료를 각 2개의 키친으로 보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었지만, 처음에는 구분이 모호해서 다 만들어 버리곤 했죠. 그래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고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건 요리에 관한 건 아니고 청소하다가 다들 바닥 솔질을 하면서 순간 걸랑이 떠오르면서 교수님의 진두지휘아래 다 같이 썰링 하듯이 청소를 한 기억이 있어요. 인생동안 그렇게 웃으며 청소한 경험은 없었을 거예요.

Q 마지막으로 얻게된 교훈이나 느낌 소감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팀USA 조리팀으로 일하면서 영어가 가장 두려운 저였습니다. 영어는 못했지만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배운 조리용어와 재료의 영어이름, 등이 실전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긴 문장속에 아는 단어들 덕분에 일 하는데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죠. 그 덕분에 외국인과 같이 있는것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이겨 낼 수 있었구요. 그때 느낀 것이 도전은 피하는 것 보다는 해보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가장 신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제 음식을 먹고 미국팀 선수들이 올림픽을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의 맛뿐만이 아닌 안전을 더욱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팀이 상을 타도 매우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사진제공: 2018 평창동계올림픽 | <https://www.pyeongchang2018.com>

*USOC : 미국올림픽위원회

(United States Olympic Committee)

*MOU : 체육 교류 양해각서

*Prep : 음식을 만들기 전에 세척과 손질, 계량등을 미리

해놓아 바로 음식 만들기 전 단계까지 해 놓은 것.

우송정보대학 외식조리과 16학번 황수인 (25세 남)**Q 참여하게 된 경로나 계기 알려주세요!**

작년 상반기에 학과 교수님에게 평창 올림픽 USOC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기회가 오지 않았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마음에 있고 있었는데, 원래 가기로 한 친구가 해외 인턴을 나가는 바람에 저에게 기회가 와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인턴을 나갔던 친구도 같이 참여하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덜 했습니다.

Q 미국팀 대표 식단을 맡았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하신 일들이 궁금합니다.

평창 올림픽 기간중에 3개의 주방이 운영 되었는데, 한 곳은 빙상경기가 있는 강릉에서 빙상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주방이었고, 한 곳은 설상 종목이 있는 평창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주방이고, 마지막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주방에 식재료를 손질해서 보내주는 메인 주방 이렇게 3개의 주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식재료를 손질해서 보내주는 메인 주방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들 전 식단의 레시피를 보며 필요한 식재료를 손질해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Q 선수들이 가장 좋아했던 식단은 무엇인가요?

단순 식재료를 보내는 일을 해서 선수들이 무엇을 즐겨 먹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지만 듣기로는 미트소스를 주로 많이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미트소스를 많이 만들어 보낸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선수들이라 그런지 닭가슴살을 많이 찾아 하루에 2~3팩은 손질해서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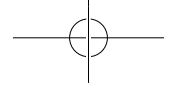
Q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동안 가장 기억에 남았던조리팀 에피소드 있나요?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교수님과 동기랑 같이 일을 한 것 자체가 많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침 일찍 기상해 편의점에서 같이 도시락을 먹고 점심에는 그곳에 있는 재료로 만들어 먹고 저녁은 무엇을 먹을지 찾아보며 먹었던, 어떻게 보면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그것 자체가 가장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 때문에 챙기지 못했던 생일과 졸업을 교수님들께서 챙겨주셨는데 이것 또한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아마 2018년도에 생기는 일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을까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얻게된 교훈이나 느낌 소감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대한민국 선수들을 위한 요리가 아닌 미국대표팀 선수들을 위한 요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한국인 대표로 미국 선수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일을 맡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많이 긴장도 되었고 기대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난 뒤에는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즐거움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한 달간의 USOC에서의 생활은 요리가 제 적성과 잘 맞는 분야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많이 혼나기도 했지만 이 과정은 누구나 다 겪는 일이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실수를 받아들이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송정보대 외식조리과 17학번 한상준(25세 남)****Q 참여하게 된 경로나 계기 알려주세요!**

저는 학과 제임스교수님 수업 때 항상 수셰프(반장)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창에 가서 요리를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림픽 기간에서도 제임스교수님 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리가 전부 차서 못 가게 될 줄 알았는데 추가인원을 더 뽑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찾아가서 USOC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Q 미국팀 대표 식단을 맡았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하신 일들이 궁금합니다.

저는 대관령에 있는 용평리조트내 선수식당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야채류를 도맡아서 요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생선류나 육류도 손질하고 요리하게 되었고요, 샐러드와 스무디류 제외하곤 모든 음식을 했습니다.

Q 선수들이 가장 좋아했던 식단은 무엇인가요?

부드럽게 조리한 광어를 참 좋아했습니다. 기름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조리방법과 향을 선택해서 선수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외로 기억이 남는 건 갈비였습니다. 저희가 식수인원보다 많은 갈비살이 들어와서 추가음식으로 한국식 갈비를 만들어서 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Q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았던 조리팀 에피소드가 있나요??

항상 매일이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지만 설날 때가 기억에 납니다. 고기가 좀 남아서 한국식 '육전'을 해서 내보냈는데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하고 맛있게 먹어주어 기분이 좋았던 게 생각이 나네요. 또 다른 건 조리에 대한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선수들이 식사를 마친 후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와 사진 찍지 않을래?” 하며 메달을 꺼내어 함께 사진 찍은 경험, 또 식사하며 같이 일하는 영양사에게 이탈리아어를 배웠는데, 봅슬레이 선수가 옆에 와서 같이 이탈리아어를 배웠던 재미있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얻게 된 교훈이나 느낌 또는 소감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먼저 정말 대한민국에서 일을 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의 가치관 생각들도 많이 느껴 볼 수 있는 기회였고요. 또 단순히 음식만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선수들이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고, 음식이 배만 부른 것이 아닌 속이 편한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그것을 이루어 냈을 때의 쾌감과 뿌듯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이란 먹는 사람을 위한 것임을 다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진제공: 2018 평창동계올림픽

<https://www.pyeongchang2018.com>**우송정보대 17학번 김남균 (27세 남)****Q 참여하게 된 경로나 계기 알려주세요!**

저는 학교와 USOC MOU를 통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선발로 되지는 않았지만, 추가로 선발 할 때 학과 James 교수님이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개인 레스토랑에서만 일 했었는데,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미국팀 대표 식단을 맡았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하신 일들이 궁금합니다.

저는 두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Production과 레스토랑에서 일했습니다. Production은 레스토랑에서 조리할 때, 편하게 PREP을 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또, 강릉선수촌 앞에 있는 PSC 레스토랑에서 근무했습니다. 강릉에 위치하다보니, 미국 대표팀 비상종목 선수들의 식사를 책임졌습니다!

Q 선수들이 가장 좋아했던 식단은 무엇인가요?

기억에 남는 식단은 아침 식사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종종 아침식사를 했는데, 오트밀, 와플, 시리얼 등 선수들이 평소에 미국에서 먹던 식단이다 보니, 선수들이 많이 좋아하던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납니다.

Q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았던 조리팀 에피소드가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여자 아이스하키 금메달 결정전이 있던 날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기였습니다, 두 국가는 엄청난 라이벌 관계입니다.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금메달을 탄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여자 대표팀이 아침식사를 하는 날이었는데, 식사를 하고 저희 스태프들에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 금메달 꼭 따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경기가 진행 될 때 스태프들과 경기를 보면서 스타아웃에서 금메달이 결정되었을 때, 너무 기뻐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얻게 된 교훈이나 느낌 또는 소감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사실 저는 이번 올림픽에 조리팀에 참여하기 전까지, 요리를 계속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요리를 좋아하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요리에 대한 열정을 알려준 소중한 경험으로 기억 되었습니다.



WOOSONG NETWORK

우송튜터링 장학생 상하이 해외연수

EDITOT

차지현 | Cha, Ji Heon

Q 튜터링을 하게 된 계기와 활동 내용은 무엇인가요?

저는 신입생 시절부터 과대표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동기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우송튜터링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우송튜터링은 선후배간 혹은 동기끼리 팀을 이루어 함께 공부를 하며 학업성취도와 성적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함께 공부를 하다보면 선후배간의 우애와 동기들과의 친밀감 형성에 도움을 주어 공부와 학교생활 모두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인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튜터와 튜티들과 함께 전공 공부를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서로 도움을 주면서 우애와 친밀감을 다지다보니 결국엔 제 실력 뿐만 아니라 다른 튜터와 튜티들까지 향상 되는 성적을 보면서 보람을 느껴 더 열심히 튜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튜터링 장학생 해외연수 일정 알려주세요!

저희는 4월 동안 상하이에 머물러있었는데, 제일 먼저 중국 속의 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를 방문한 후, 유럽풍의 이국적인 카페에서 한 잔의 차를 음미 할 수 있는 '신진지'를 다녀왔습니다. 밤에는 200년 전 상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해 옛 거리'와 상해하면 대표적인 '동방명주 전망대'를 야경을 통해 감상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서호 남쪽에 위치한 송성 풍경구에서 매일 펼쳐지는 항주 최고의 대형 테마파크 문화예술 공연 '송성 가무쇼'를 감상하고, 세계 유네스코로 지정된 '서호의 풍경'을 유람선으로 통해 감상하였습니다. 셋째 날에는 '상해 화동 사범대학'과 '상해 자오퉁 대학(교통대)'을 방문하면서 중국 대학생들의 생활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동양의 베니스라 불리는 수향마을 '주가가'에 방문하였고, 상해에서 '2층 시티투어버스'를 타면서 색다른 경험도 즐겨보았습니다. 상

해학기가 시작되면 모든 학생들이 이번 학기에는 학점이 잘 나오기 바라면서 목표와 계획을 세우지만 혼자 공부 하려니 어렵고 의지가 부족해서 쉽게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죠?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우리학교에는 우송튜터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우송튜터링은 선후배 및 동기들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학습활동을 하면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기르고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터득하면서 이를 통해 학업효율을 상승시키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2학기를 마 무리 하면서 한 학기 동안 우송튜터링을 통해 학업 증진에 성공한 학생들 중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선정 된 학생들은 중국 상하이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우송튜터링부터 시작해서 중국 상하이까지 다녀온 언어재활과 정성희 학생을 만나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해의 최대 변화자인 '남경로'를 들린 후 밤에는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황포강 유람선'은 유럽풍 근현대 건축물을 비추는 조명의 외탄과 고층빌딩에 스카이라인의 화려한 네온사인 야경이 아름다운 밤을 만들었습니다. 3일 동안 상하이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빗썸 날 저희는 무사히 한국에 귀국 하였습니다.

Q 튜터링 장학생 해외연수 기간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특히 3일차에 다녀온 황포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유럽풍 근현대 건축물을 비추는 아름다운 조명의 외탄과 고층빌딩의 스카이라인에 화려한 네온사인 야경을 본 것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상해 사진을 모아둔 앨범에서도 황포강 유람선을 타고 찍은 사진이 제일 많을 정도로 유람선 야경이 제일 기억에 남고, 모든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복귀하여 튜터링 우수학생들과 야식을 먹으며 밤새 이야기의 꽃을 피우며 서로 친해지던 시간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Q 다녀온 소감이나 느낀점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최우수 학생으로 발탁된 친구들이 전공이 같은 과가 아니라 다양한 전공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 있어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른 과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우송튜터링 장학생 해외연수로 인해 다양한 전공의 친구들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많은 친구들을 만나 친해 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대의원이 아니더라도 튜티로서 좋은 활동의 실적과 성적향상을 보인다면 우수학생으로 발탁될 수 있으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좋은 기회를 통해 학교생활에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WOOSONG FOCUS

2017 전국고교 경진대회 콘테스트 개최

일본외식조리학부

일본외식조리학부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본인 교수진의 교육을 통해 음식에 일본문화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조리와 일본제과제빵의 이론교육과 산업현장의 기술을 습득하고, 일본 여강의로 이루어지는 실무중심의 수업체계와 국내외 인턴십 및 연수를 통해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외식조리학부에서 지난 11월 4일 '2017 전국 고교 제과제빵 조리 콘테스트'를 열었어요.

전국고교 학생들이 자신의 재량을 보여주고 미래의 꿈을 향해 한발 가까이 가는 의미 있는 자리였는데요. 학생들이 원가30,000원 이내의 재료로 주어진 시간내에 요리를 만들고, 주어진 과제 특성에 맞게 독창성, 아이디어, 모양, 맛, 작업과정, 위생관리 등의 심사기준을 두었어요.

제빵과 부문에서는 '친구에게 주고 싶은 고구마 파운드케이크' 주제로, 조리 부문에서는 '닭을 이용한 일본식 일품요리'로 과제가 주어졌어요. 메뉴 개발부터 조리의 전체 과정을 학생들의 역량으로 이루어 내는 모습을 보니 일본외식조리학과의 학생들의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시간이었어요!

스마트로봇자동화과

스마트 공장의 심장으로서 성장할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100% 취업을 목표로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스마트로봇자동화"과는 "스마트자동화" 분야, "스마트로봇" 분야의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창의적인 스마트 융합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지난 11월4일 스마트로봇자동화과에서 주최한 전국 고교 우송드론 경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인 혹은 2인의 고등학생 1팀으로 드론 미보유자(학과드론활용) 및 드론보유자(개인드론) 상관없이 모든 전국 고교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제한된 조건 내에서 드론을 세팅하여 호버링, 링통과, 곡선통과, 저고도비행, 지점 착륙 등 5종의 경기를 수행하고 시간을 계수, 평가하는 경기이며 두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경기 시작 전, 처음에는 비틀거리며 날아오르다 부딪히거나 얼마 못 가 추락

애완동물학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교육하는 전통있는 학부입니다. 전문적 지식과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각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시킴으로써 전문화된 기술을 습득시키고 전공특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졸업 후 역량있는 전문인으로써 활동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전공별 실습시설이 갖추어진 우송애완동물아카데미관에서 교육하며, 프로그램 또한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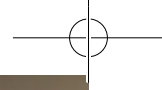
애완동물학부에서도 '2017애견 프로필 사진 경진대회'를 개최했어요.

지난 애완동물학부에서 주최한 애견과 함께 포즈를 취하여 프로필 사진을 찍고 무료인화 및 경연대회 진행되었어요. 반려견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원하는 사진을 남기기 위한 소품을 준비하거나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반려견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모델 강아지도 따로 준비되었습니다.

1.안정감(10점) 2.강아지와의 친밀감(20점) 3.투표(20점) 4.사진 전문가의 평가(50점)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었다네요. 이번 대회를 통해 반려견들에 대한 이해도와 함께 찍은 사진을 인화하여 액자로 만들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EDITOT

신지현 | Shin, ji hyun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컴퓨터정보과

2017년 쌀쌀한 겨울 '제 7회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가 개최되었습니다!!

1차 예선을 통과한 9개의 팀 중 영예로운 대상을 차지한 컴퓨터정보과(김성훈, 김종현, 최미경, 대표 김승민) 의 <싱투게더> 팀을 만나보았는데요! 과연 어떤 아이템으로 쟁쟁한 다른 팀을 누르고 당당히 대상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여러분의 창업아이템계획을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대상의 꿀팁 을 알아왔습니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Q 팀 이름의 특별한 뜻이 있나요?
원래 싱이 정확히는 think 생각하는 뜻 인데, 다 같이 생각해서 함께 해보자는 뜻으로 싱투게더 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Q 벤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어떤 아이템으로 참가하였나요?
스마트 트래커 라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게 있어요. 휴대전화의 3분의 1정도 크기에 스마트 워치처럼 휴대폰을 블루투스와 연결한 도난 방지 시스템인데요. 이걸 응용해서 저희는 블루투스가 아닌 Wi-Fi 로 만들어서 기존 제품보다 거리가 길고 다용도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저희 제품은 진동과 함께 멀어지면 멀어 질수록 노래가 나오도록 만들었고, 만약 주변이 시끄러울 경우 못 들을 수 도 있어서 허리춤에 차서 진동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확인 할 수 있게 빛을 내는 것으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핫스팟을 쓰면 배터리 사용량이 많지 않나 우려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해 보았는데 데이터를 끄고도 핫스팟을 연동시키면 연동이 가능하였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배터리 사용의 소모량은 별 차이가 없었다고 말씀 드렸어요.

Q 아이템 준비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찬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중 하나가 비오는 날 모임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찾다가 차에 있다는 걸 알고 비를 맞으며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기존에 스마트 트래커는 블루투스로 사용하니까 거리가 멀면 끊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거리가 멀어져도 사용가능한 제품이 없을까 하다 만들게 되었어요. 중년층을 타겟으로 했지만 어린이들 가방에 달린 인형, 저희 같은 20대들은 보조 배터리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휴대전화와 자주 붙어 다니는 제품을 이용해서 전 연충이 사용가능 할 수 있게 만들려고 준비했습니다.

Q 창업 경진대회를 준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없었나요?
발표 시간 내에 더 많은걸 소개 시켜주지 못했다는 것에서 아쉬웠지만, 벤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준비하는 부분에서는 저희 팀원들 끼

리 팀워크도 좋았어요.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Q 대상을 받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정말 운으로 받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좋게 봐주신 분들이 계셔서 받은 것이고요. 저는 이 벤처 창업 경진대회에 참가한 것 자체가 좋은 경험 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임하게 되었는데 너무 좋은 결과로 보답 받아서 좋은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Q 우승포상으로 다녀온 일본은 어떠했나요?
연수를 다녀온 거라 노는 것은 둘째 치고 여러 군데를 다녀왔어요. 박물관이나 전시회에서 미래 산업적인 제품들을 많이 보고 왔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만든 스마트 크래커 보다 상위호환 한 제품들도 많이 보고, 국내에서보다 훨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폭이 넓어진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이번 벤처 창업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후배들에게 대회 준비 팁을 알려주세요!
단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생들의 고민중 하나가 팀 과제 같이 여럿이서 하는 건데, 책임감 없이 임하게 된다면 그 중 한명만 짊어지고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좋은 아이디어는 나올 수 없고요. 다 같이 하면 없던 것도 생겨요. 정말이에요. 후배님들이 같이 해 나가는 즐거움을 알았으면 좋겠고, 벤처 창업 경진대회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 뿐 아니라 원래 있던 제품에 플러스해서 만들어도 되니까 한정적으로 보지 말고, 제한을 두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참가학생들은 부담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창업아이디어나가 같이 힘쓰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방향으로만 생각 하시고 임하면 좋을 것 같아요. **EDITOT 문승미 | Mun, Seung Mi**



세계로 나아 갈 수 있는 기회, 영어발표 경진대회

뷰티디자인학부, 영어경진대회 대상

지난 11월 30일 우송관 회의실에서는 명장 주관 영어발표경진대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많은 학과에서 참가하였으며, 그중 예선을 통과한 팀들만이 자기만의 주제를 가지고 열띤 발표를 하며 대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발표하기 전 긴장 하던 모습과는 달리 자신감있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치열하던 영어 발표경진대회는 뷰티디자인 학부 김은지 (외 3명) 학생과 외 2팀이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EDITOT

박유림 | Park, You Lim



경진대회를 참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학교수업시간에 영어를 가르쳐주신 원어민 교수님께서 경진대회를 나가보라면서 저희에게 권유를 하셨고,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의 실력을 확인해보고 싶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대회준비과정중 힘든 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영어발표대회이다 보니 대본을 보지않고 발표하기 때문에 대본을 외우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발표시간이 정해져 있다보니 그 시간에 맞춰서 해야한다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었지만 대회준비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게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대회를 진행하면서 얻은 팁 무엇입니까?

대회 중 팀이 있다면 발표하기 전 옷을 단정하게 입습니다. 저희는 저희학과 조끼를 맞춰 입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발표 할때 목소리를 크게 하고 제스처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인사는 예의바르고 밝게 하며 발표 중 틀려도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가포르에서의 해외연수는 어떻게 되었나요?

해외연수 일정은 3박4일로 진행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시내에 위치한 관련 센터를 방문하거나 주변 지역 전공 관련 산업체를 탐방하며 ITE 전공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전공 수업에 저희가 직접 참여하면서 저희와 다른 점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수업을 받는지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원어민 교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영어를 쓰게 되면서 영어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내외 우수 기업들과의 취업 약정프로그램으로 가장 빨리[명장]을 키우는 대학

신입생이
되면



신입사원이
된다



**Sol
International
School**

글로벌명품조리과

해외 현장실습(인턴십)기관:신라호텔(중국),
캠펜스키호텔(독일), 그로스버너(두바이)등

글로벌호텔외식과

호주 ICHM대학의 복수학위
프로그램으로 호주 학사학위 취득

글로벌제과제빵학부

프랑스 INBP 및 폴보퀴즈와의 단기
교육프로그램 연계 및 국제자격증 취득

글로벌실용음악과

일본 쇼비대학과의 복수학위(2+2)운영



우송정보대학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

안내: 042)629-6114 입학처:042)629-6486~7 www.wsi.ac.kr